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청주국제공항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연월일	2025년 1월 일

청주국제공항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5년 1월 일
제안자 :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주문

-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안전 운항 기반 마련과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고자 함.

☐ 제안이유

- 2024. 12. 29.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지방공항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함.
- 청주국제공항은 전국 여섯 번째로 조류 충돌 건수가 많고, 착륙유도 방위각 시설과 그 받침대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하며, 전국 국제공항 중 두 번째로 짧은 활주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등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및 공항 발전에 저해 요소가 존재함.
- 특히 급증하는 청주국제공항의 항공 여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충북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함.

- ## ☐ 보내는 곳: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한국공항공사사장

- ## ☐ 붙임 건의안 1부.

청주국제공항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들어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황망하기 그지없는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공항 내 항공사고 대응 시스템과 안전시설물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항공사고로 국토 중심부에 자리해 1,400만 주민들의 하늘길을 책임지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또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참사의 원인이 공식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무안국제공항과 유사한 항공사고 유발 및 확대 위험 요소가 청주국제공항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에서는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난 5년간 청주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사고는 총 33건으로 전국 14개 공항 중 여섯 번째로 많지만, 주요 공항에는 설치된 열화상 탐지기 같은 조류 퇴치 최신 첨단 장비가 없습니다. 또한, 공항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소방구조대 상시 대기 인력이 다른 공항보다 적은 실정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밖에 청주국제공항에도 무안공항과 유사한 착륙유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그 받침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항행 안전시설물 전반에 대한 재질조사와 국내외 규정, 전문가 의견을 꼼꼼히 살펴 청주국제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방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참사로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활주로는 짧으면 동체 착륙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길이는 2,744m로 무안공항 활주로보다 56m가 더 짧고, 이는 전국 국제공항 가운데 양양공항을 제외하고 가장 짧습니다.

민군 복합공항으로 공군과 함께 활주로를 사용하는 청주국제공항은 온전한 민간 전용 활주로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97년 개항한 이래 활주로는 단 1m도 연장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이 시간당 7~8회에 불과하고, 활주로 길이마저 짧아 대형항공기 이착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항공 여객 수요에 대처하기는커녕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그 잠재력을 맘껏 펼치지 못하는 웅색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공항 중 네 번째로 이용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는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대한민국 행정수도 관문공항’이요, ‘수도권 대체공항’이라 불리는 청주국제공항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청주공항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인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앞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충북도민과 청주국제공항 이용객들이 마음놓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의 내용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하나, 조류 충돌 등 항공사고 안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항행 안전시설물이 국내외 항공 안전 규정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하나, 무안국제공항보다 짧은 활주로를 가진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하루빨리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항 이용객 수요에 적극 대응케 해주십시오.

하나, 공항 활성화를 위해 제7차 공항개발 중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계획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2025. 1. .

충 청 북 도 의 회